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글 | 로스비 모히카 성

그림 | 지야 류테료

글 | 로스비 모히카 성 (Rosevi Mojica-Sung)

그림 | 지야 류테료 (Gia Leuterio)

편집 | 김은파, 이수인, Mike Jaffe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한국어 번역 | 김은파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까 너이씨 (บุญทริกา น้อยศรี), 교정: 채혜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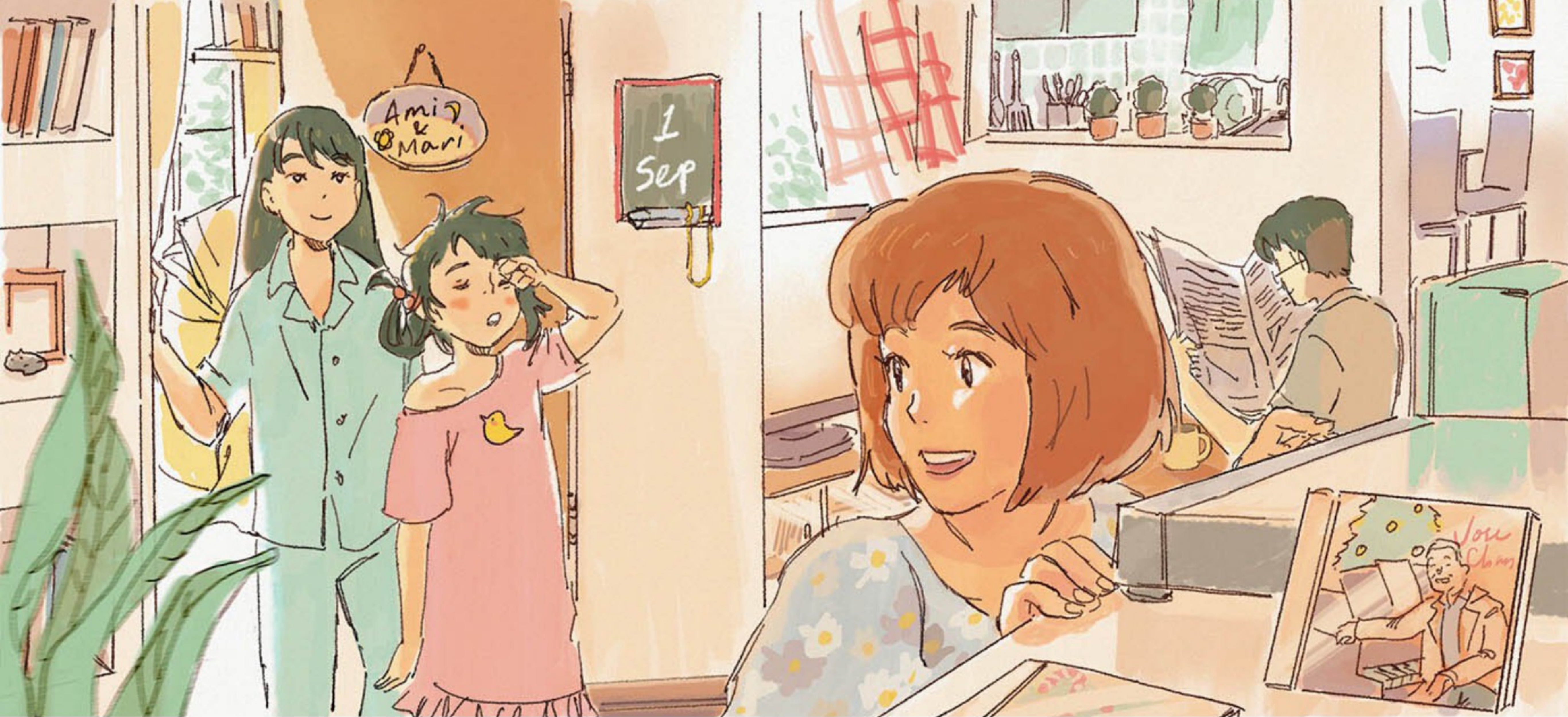
목소리 | 한국어: 윤성혜, 베트남어: 레 쉐언 비, 중국어: 곽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페와 떼차마하몽콘





마릴락은 엄마, 아빠, 언니 아미한과 함께 부산에 살아요. 필리핀 사람인
엄마처럼 눈이 크고, 한국 사람인 아빠처럼 피부가 하얗지요. 초등학교
3학년인 마릴락은 아이돌 가수처럼 춤추는 걸 좋아해요. 마릴락의 생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어느 날, 아미한과 마릴락은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에 잠이 깬어요. 마릴락은 어리둥절했어요. “아직 12월이 아닌데... 왜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었어요?” 아미한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어져.” 엄마가 설명했어요. “9월부터는 어디를 가든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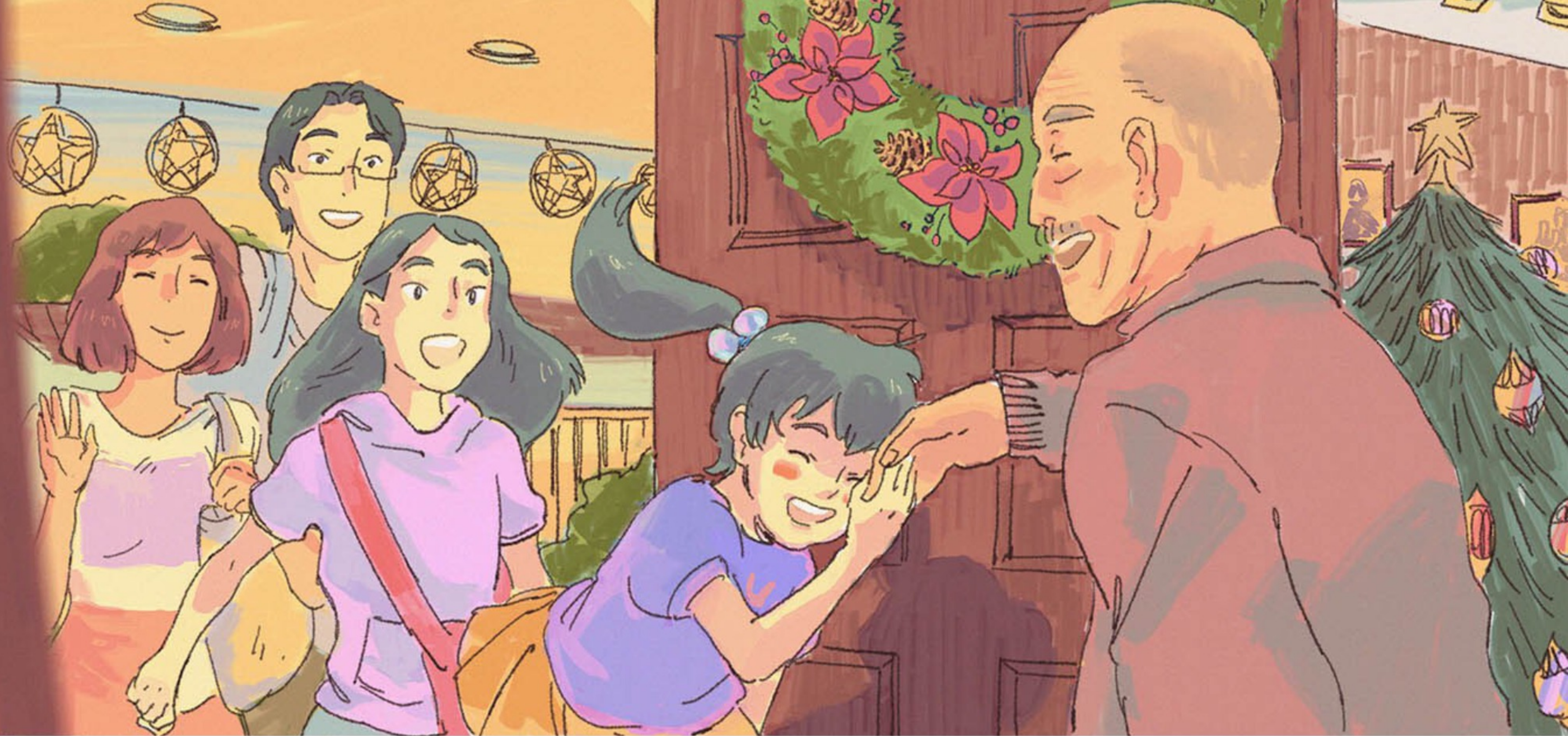
마릴락은 자기 생일이기도 한 크리스마스를 아주 좋아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갈 거라서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마릴락은 쇼핑몰에 가서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 ‘파롤’을 보는 걸 좋아해요. 파롤은 큰 별처럼 생긴 여러 가지 색깔의 크리스마스 등불이에요.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보여주지요.



엄마는 필리핀에 있는 친척들에게 선물할 여러 가지 '파살루봉'을 샀어요. 파살루봉은 가족과 친구,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필리핀의 전통문화예요. 여행을 한 사람은 집에 무사히 돌아와 기쁘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선물이나 기념품을 사요. 아미한과 마릴락도 필리핀에 있는 외사촌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파살루봉을 준비했어요.



마릴락네 가족은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인 12월 24일에 필리핀에 도착했어요. 필리핀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명절이에요.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와요. 공항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어디든 차가 막혔어요. 사람들은 쌀로 만든 케이크인 ‘비빙카’와 햄 같은 크리스마스 음식을 사느라 바빴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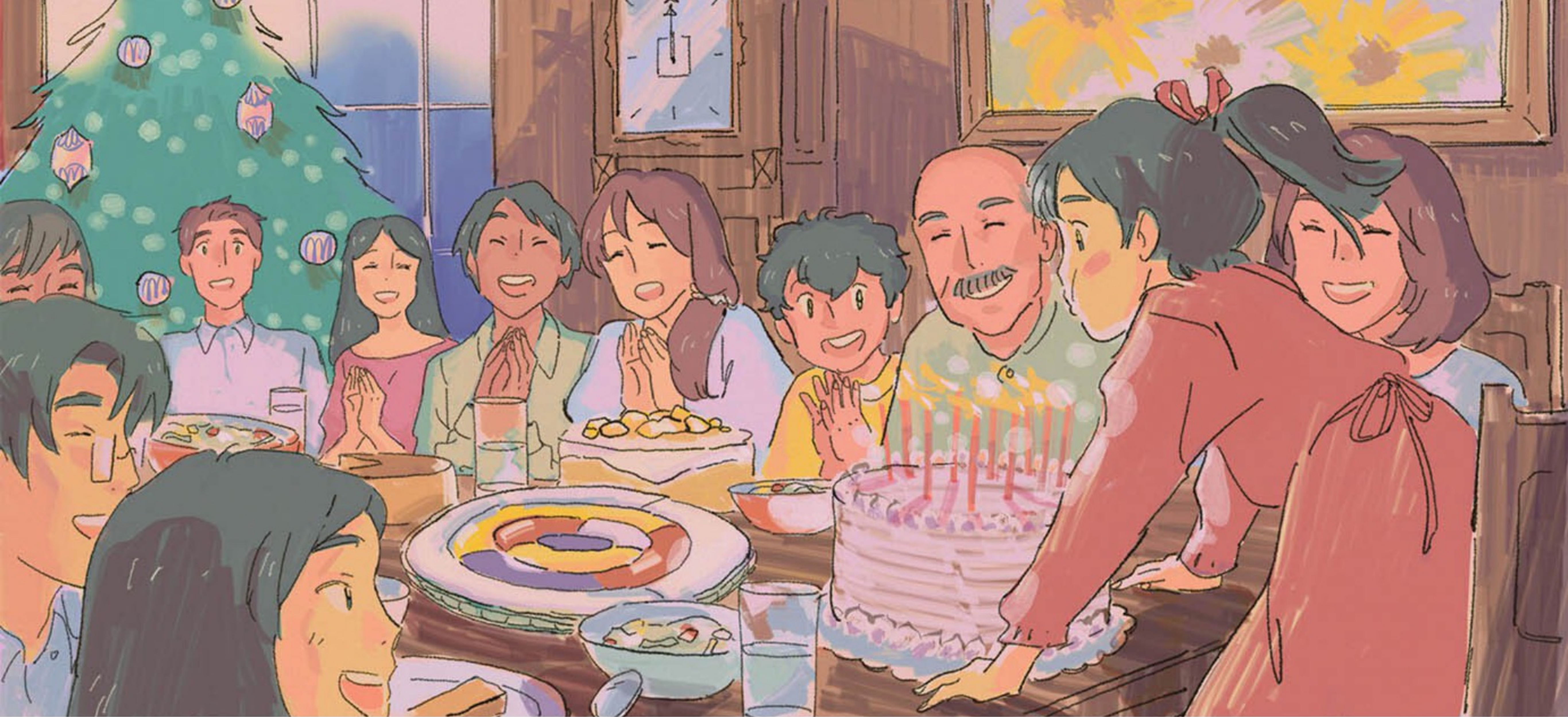
마릴락네 가족은 곧장 외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아미한과 마릴락은 “마노 뽀”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이마를 외할아버지의 손등에 갖다 댔어요. 마노 뽀는 필리핀에서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이고, 인사를 드릴 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미한과 마릴락은 다른 친척들에게도 인사했어요.



아미한과 마릴락은 밤 10시에 친척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밤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갔어요. 미사 후에 온 가족은 집으로 돌아와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했어요. 아미한과 마릴락, 외사촌들은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있는 선물들을 열어 볼 생각에 신이 났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캐럴을 부르는 전통이 있어요. 노래에 대한 보답으로 각 집에서는 음식이나 약간의 돈을 주곤 해요. 아이들이 마지막 노래를 다 부르자 엄마는 100페소를 선물로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어요.



밤 12시가 되었어요. 전통적으로 필리핀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밤 미사에 다녀와서 자정에 저녁 식사를 해요. 온 가족은 모두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외사촌들은 노래를 불렀고 마릴락은 아이돌 가수처럼 춤을 췄어요. 마릴락은 생일 케이크 촛불도 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아이들이 외할아버지 댁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지요. 외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작은 장난감을 주었어요. 아이들은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라밍 살라맛 뽀) 아이들은 모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